

7080과 2030세대 손잡고 추억 속으로...



개막식 축하 공연 개막식 축하 공연이 열린 지난 9일, 최성수·해바라기 등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금남로 일대에 모인 2만여 명의 관중이 함께 부르는 등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연출했다.



외국인 거리퍼레이드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식전 행사로 열린 거리퍼레이드. 8명의 브라질 무용수가 삼바 리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어린이 사물놀이 금남로 옛 한국은행 앞에서 10일 열린 '충장 병아리 축제'. 무대에 오른 광주 시 서구 버들마을 '삼삼어린이집' 어린이 30여 명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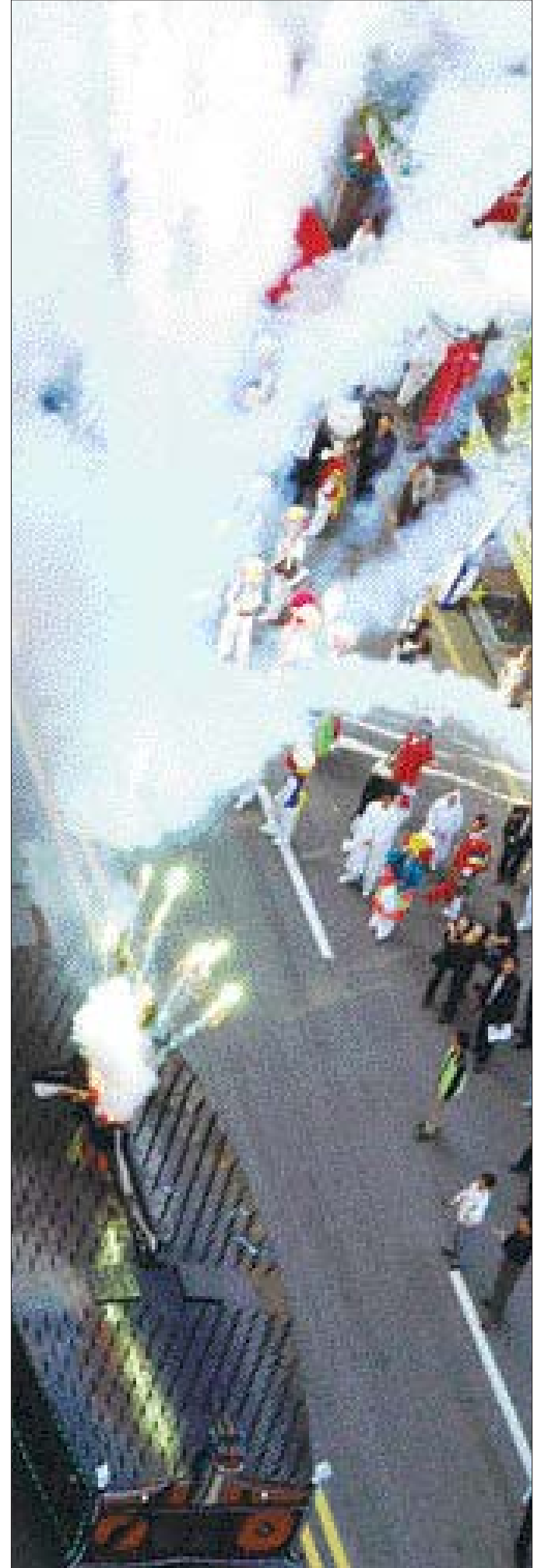
추억의 명소에서 '찰칵' 동방극장·뽕뿌집·달동네 등 광주 옛 명소들이 재현된 옛 화니백 화점에서 관람객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향수와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는 충장로

레코드 가게에서 율려퍼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던 거리, 가난했지만 이곳의 훈훈한 미소에 배불렀던 아련한 추억 속의 충장로가 되살아나고 있다.
'뽕뿌집'에서 진한 추억탕 한 그릇을 먹고 '부레옥'에서 '아이스케기'로 입맛을 다셨던 충장로의 옛 모습이 오늘 재현됐다. 가슴을 설레게 했던 제비뽑기·봉선화 물들이기 등 지난 시절 놀이 문화가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기성 세대에겐 지난날의 향수와 그리움을, 젊은 세대에겐 북적거리던 충장로의 옛 역사를 보여주는 '2007 충장로 축제'. 그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 영글에 담았다.

/고경석·위정량기자 ksgo@kwangju.co.kr



거북선 축포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한 여수 거북선 보존회 회원들이 거북선 안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며 축제 개막을 축하해 주고 있다.

쏟아붓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에너지, 난방비 부담 없이 1/3로 줄었다

한정수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10월 10일까지 무상지원금 100만원

3
TEMPIA
011-955-4122, 080-701-7117

100% 유기농이자친환경

장수촌 삼합

자연 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장/수/촌/삼/합 011-522-5933